

2013 웨신총회 웨민에서 강도사 고시 시행

한동숙 이사장, 「기도와 실력으로 조국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택받은 자들」



총회장 이재갑



고시부장 장창원 목사



총무 신연창 목사



강도사 고시를 마치고 고시위원들과 교수 전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1월 31일(목)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소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이사장 한동숙 박사) 2층 강당에서 졸업을 앞둔 22명의 생도들과 총회에서 6명의 전도사 등 총 28명의 전도사가 고시에 응시해 신년벽두 웨신총회의 발전과 부흥에 큰 변화의 닳을 올렸다.

총회 고시부 서기 이영훈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고시위원 남궁열 목사가 기도를, 고시부장 장창원 목사(부총회장)는 이사가 6:1~8절을 중심으로 “누가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회 총무 신연

창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이재갑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감안식 목사의 기도으로 시작된 설교실기에 들어가 고시위원의 평가 및 채점이 있었다. 3부에서 총회장 이재갑 목사와 고시위원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4부 순서로 총회 고시위원 김춘택 목사의 진행으로 폐회예배가 드려지고 증경총회장 임철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총회 고시부장 장창원 목사(부총회장)는 인사를 통해 “웨신총회가 2013년도 강도사 고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증경총회장, 총회장, 고시위원들, 교수들에게 감사사를 전하

고, 고시에 응시한 전도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장 목사는 고시에 응한 응시자들에게 고시합격 이후에도 쉬거나 멈춤이 없이 학교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총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과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한국교계의 표준인 웨신총회 소속의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꽃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어 복에 복이 더하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아베스의 축복이 넘치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한편 동 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박사는 웨신총회 주최와 고시부 주관으로 진행된 2013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한 28명의 재학생

들과 전도사들을 향해 “여러분은 기도와 실력으로 우리 조국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치하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웨신총신으로서 어느 곳을 가든지 소금이 되고 빛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사설

해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로 일으킨 왕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다. 그는 불과 18세에 윌리엄 왕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왕이 되었다. 그가 왕으로 지명 받을 때에 빅토리아는 그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통통하고 그리 예뻐 보이지는 않았어도 신앙심이 대단하여 그가 사랑하는 남편과 불과 20년 살고서 남편과의 사별을 맞보아야 했지만 그는 분명히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대영제국을 일으켰으며 무려 60여년을 다스리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박근혜 당선인은 얼마나 예쁘고 곧은가? 비록 여자는 것 때문에 선거에서도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앞선 미국을 능가하는 여자로서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안겨준 분이다.

미국은 흑인은 대통령이 되게 했지만 할렐루야의 경전에서 여자로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흑인임에도 남자가기 때문에 대통령후보로 지명을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당선인은 여자로서 당연히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리고도 종북사고가 깊고 진보성향이 있음에도 그래서 그를 따르던 많은 젊은이들이 한숨을 쉬게 만든 것은 그런 외향적인 것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가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외모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중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부모의 애국정신을 보신 것이다. 나는 안다. 그분의 부모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나라의 수익을 위해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들을 보내며 그곳에 가서 함께 일했던 두 분을, 어떤 대통령이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그분이 나라를 위해 잘살아보자고 할 때에 민주화를 부르셨었던 이들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고 하면 무어라 말할까? 지금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는 그를 돕고자 하는 분들이 일어서고 있다. 나라의 빛을 갠가 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찾자, 고 아동범죄와 흉악범죄 타파를 위해 그야말로 민생의 정신이 마치 새마를 정신처럼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당선인이 임기를 마칠 때에는 그 부친의 업적도 분명히 되 새겨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놀랄 만큼 달라질 것을 확신한다. 해지지 않는 나라로...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정삼지 목사 재판부의 선처 호소

검찰, 정삼지 목사에 10년 구형 ... 3월 8일 선고 공판

고등법원에서 교회 돈 횡령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삼지 목사가 최후 변론에서 자신으로 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해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교회 돈 32억 원의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지난 해 대법원 파기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2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삼지 목사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종교계는 지도자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그간 법률적 처리가 별로 없

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고인의 전횡으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경우로, 신도들의 헌금이 담임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가 운용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선 정삼지 목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정 목사는 “저를 위해 아픔을 딛고 고통당한 많은 분들에게 책임을 느낀다”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인생을 돌

아보고 목회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할 성직자로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인정한다”며 “상처받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닐을 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을 방청하던 정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목사가 잘하는 것이다”, “거짓말 말라. 종교 사기범 아니냐”며 고함을 질렀고 이를 경찰들이 제지했다. 재판정에서조차 교인 간 소란이 일자 지켜보던

재판관은 “목사가 잘못을 했다면 이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교회 사람들까지 모두 분열이 되어 서로 싸워서야 되겠다. 이런 때 일수록 교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며 세워야지 이런 비난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환송 전 원실에서 나온 총 횡령금액 32억 원 중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금액인 3억 7800여만 원은 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29억 여 원 중 다시 반환된 11억여 원이 중복됐는지를 판단하고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삼지 목사의 고등법원 선고 공판은 3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환배원장)
29 예배교회(류준우목사)
30-1/2 한들교회(송우중목사)

2012년 2월
6-9 갈릴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13-15 신갈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우목사)
27-29 동명행강교회(고영열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교회(이석원목사)
23-25 온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송영호목사)
13-16 성산교회(송영호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안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2-14 베레스교회(허영해목사)
17-30 2주연수심야대심방(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선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성어를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환배원장)
20-23 갈릴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이환구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25 천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감동지역교회연합성회(회장 천한선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교회(라계두목사)
19-21 천리교회(이영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영금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릴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안성결교회(강석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김진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1-23 참좋은교회(김갑성 목사)
28-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진조 목사)
4-7 갈릴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환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통영미수교회(전종우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성용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환 목사)

2013년 5월
6-8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2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15 일신제일교회(천창대 목사)
20-22 천성교회(이재진 목사)
27-31 선교지방문

2013년 6월
3-5 나눔예교회(최종덕 목사)
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0-12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24-27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2013년 7월
1-5 신학성어를특별세미나
7-20 2주연수특별심야기도대심방(예복교회·담임 소진우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5-8 금산리마태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은기도원(김환배 원장)
19-22 갈릴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죽을 때까지 자기 나이만큼 전도하자”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상임회장 오종설 목사 취임식



충남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충남성시화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충남 보령 대천중앙교회에서 최태순 목사가 새 대표회장 취임하여 충남의 성시화를 위하여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전임 대표회장 백승억 목사(전기하성 총회장, 서산순복음교회 원로)최 목사는 지난 6년간 충남 대표회장을 맡아 충남 각 시군마다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고, 2011 충남국제성시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태순 목사는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보령시기독교연합회 회장, 보령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예장통합 충남노회장을 거쳐, 현재 충남경찰청 경무실장에 재임 중이다.

박종서 목사(부여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식은 박철영 목사(청양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의 대표기도와 글로리아중창단(대천중앙교회)의 찬양에 이어 김영태 목사(전 예장통합 총회장, 필리핀 아태장신대 총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에레미야 1장4절~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며 “최태순 목사를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쓰시기 위해 세우셨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교인들이 최소한 2명씩 전도하면 한국은 복음화



가 될 것”이며, “성시화운동 전략이 교회마다 적용되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두 사람 전도운동’을 펼치면 충남이 성시화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오종설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 및 축하에서 최일규 사관(보령본부장)이 최태순 대표회장 취임자를 소개하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가 위촉장을 최태순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정진모 목사(서천성시화운동본부장)가 취임기도를 인도한 후 최태순 목사가 취임사에서 “충남성시화운동본부 16개 시군 조직을 굳건하게 하며, 미조직 도시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충남 및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연수회를 통해 성시화의 비전과 전략을 더욱 확산시켜 가겠다.”며 뜻을 밝혔다.

전임 대표회장 백승억 목사는 충남성시화운동본부기를 최태순 목사에게 전달했다. 세계성시화운

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최태순 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하고 새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이어 기장 총회장 나홍균 목사(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우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축사를 했다. 나 목사는 “WCC와 WEA가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며 지난 13일 WCC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와 집행위원장 김영주 목사, 한기총 총재철 대표회장, 직전 대표회장 김자연 목사가 WCC 부산총회를 위해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나 목사는 “보수와 진보와 싸우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준우 장로는 “충남은 지난해 수출규모가 서울 포함 17개 광역 시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인구도 늘고 있다. 충남이 한국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그러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도 그만큼 좋아져야 한다.”며 “지난해 소방관을 비롯해 2명을 전도했는데, 앞으로 교계 교단, 개교 회주의를 넘어서 성시화운동을 통해 충남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건강한 충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영 목사는 “2005년 12월 20일 저녁 이 교회에서 김준곤 목사를 모시고 보령군 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를 드렸고, 2010년 12월 1일과 2일 충남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했다.”고 밝히고 “최태순 목사를 중심으로 전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행복한 도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충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취임 및 축하식은 대천중앙교회 임갑수 목사의 축언과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오종설 목사의 내빈소개,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문용 목사의 알림에 이어 백승억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직전 대표회장)축도로 마쳤다.

한교연 2대 대표회장에 박위근 목사 새로운 연합운동 다짐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위근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을 2회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31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대표회장 선거에서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박위근 목사가 박수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선출된 박위근 목사는 한교연

이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위근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직무의 중요성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맡게 됐다”며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한국교회가 한교연을 중심으로 연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교연, 회원 간 연합 강조하면서 기구 안정화 각오 다져 박 목사는 거듭 한교연 회원교

단 및 단체들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창립 2년을 맞아 한교연 회원교단과 단체가 하나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연합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며 “한 교단과 단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한교연이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임하는 김요셉 초대 대표회장은 “이제 한국교회연합이 튼튼하게 섰다”며 “한국교회를 섬기는일에 이장표를 세워갈 줄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한교연은 초대 대표회장으로서 김요셉 목사의 노고를 인정,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대표회장 선출 전 감사보고에서는 저조한 위원회 활동 등이 지적사항으로 제기됐으나, 전 반적으로 행정과 재정이 빠르게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나회기 수입으로는 각 교단의 회비 및 후원금 4억 5천만원이 입금됐다. 제2회기 예산액은 회원교단 및 단체회비 3억 1천만 원을 포함 7억 4천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한편 한교연은 총회를 마치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다짐을 총회 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이날 총회 직후에는 박위근 목사 대표회장 취임예배가 열렸다.

강원도 횡성군 성시화운동본부 설립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본부장 김응세 목사 취임

횡성군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횡성군성시화운동본부 설립예배를 드리고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하여 행복한 군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횡성군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횡성성시화운동본부 초대 대표회장에는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 본부장에 김응세 목사(횡성성결교회)가 취임했다.

28일 오전 횡성읍 횡성성결교회(담임목사 김응세)에서 열린 설립예배는 횡성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및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취임감사예배로 드렸다.

총무 장명길 목사(공근감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윤순길 장로(신흥위원, 제일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정윤석 장로(횡성성결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둔내장로교회 이재재 목사가 이사야 60장1절~4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횡성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67개 교회들과 함께 횡성지역 복음화를 힘을 쏟아야 함을 알게 됐다.”고 연합을 강조했다.

이어 횡성군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이고 횡성군성시화운동 대표회장에 취임한 양명환 목사(횡성감리교회)는 “6년 전 횡성감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횡성군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횡성군민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횡성군 성시화운동본부 설립예배 좌측 맨 앞 줄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횡성군기독교연합회 회장과 횡성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응세 목사(횡성성결교회)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따라 화목한 횡성군, 더불어 살아가는 횡성군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석용 횡성군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종국 목사가 축사했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이임회장에 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이취임회장에 꽃다발을 전달했다. 예배는 성시화찬가를 부른 후 안홍성결교회 변낙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는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과, 횡성홀리클럽 회장 정계환 장로를 비롯한 홀리클럽 회원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원년멤버인 조남진 장로(전 강원일보 사장)와 춘천홀리클럽 회장 김영명 장로 등 내외부 인사들이 참

석해 횡성군성시화운동본부 설립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펼쳐질 사역을 격려했다.

횡성군은 인구 4만 4천여 명에 복음화를 17퍼센트에 교회수는 67개 교회이다. 횡성은 안홍전병과 횡성 한우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또한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학생 1만여 명이 매년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를 이곳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횡성군 성시화운동본부와 횡성홀리클럽을 통해 교회들은 부흥하고, 지역은 새롭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횡성기독교연합회와 횡성군성시화운동본부는 3.1절기념 연합예배를 3월 31일 오후 2시30분 횡성성결교회에서 드린다. 횡성군 부활절연합예배는 3월 31일 주일 오후 2시30분 횡성제일장로교회에서 드린다. 또한 횡성군성시화운동본부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횡성보(시장)와 춘천홀리클럽 회장 김영명 장로 등 내외부 인사들이 참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신로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요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충남 공주시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렐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창표 목사
(한경총 총무)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86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2625-0982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술초 목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 02)414-1191 H.P 011)775-5154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목사 : 김능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안성을 물려버리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알파과정	오후6(주일)	주일학교	오전 9:2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디사이러스	오후 7:30(화)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 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http://www.반석교회.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본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H.P 011)9027-9712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주일에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인천) 은총 기도원

담임 주은총 목사

매월 3째주 (월-목) 정기 성회
매일 밤 10시 기도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2016년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 발기인대회

“화합과 치유, 세계 평화와 분단 남북 하나로 영원구원”



그교협 세계대회 대회장 이강평 목사



그교협 세계대회 발기인대회

그리스도의교회(회장 김탁기 목사)는 지난17일 오후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관에서 그리스도협 세계대회 발기인대회 조직을 구성하고 세계대회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기인예배는 김탁기 목

사(협의회장)의 사회로 심한우 목사가 기도, 성경봉독 시:51~12절, 설교 문언식 목사(총장)가 시편 51장 12절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엄만동 목사(총무)의 광고와 편무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에는 세계대회 대회장인 이강평 목사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어 유봉현 목사의 기도와 발기인 조직발표로 회의가 진행되어 세계대회 발기인 조직과 법 개정안과 정관통과 등 기타 모든 안건은 조직위원회로 위임하고,

발기인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조직을 갖추고 다시 한 번 성공개회를 위해 기도하고 폐회선언으로 마쳤다.

이강평 대회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세계대회를 위해 10여명 정도 밖에 출석하지 않는 미자립교회에서 200만원을 모아 세계발기인대회 비용에 써달라며 전달하는 교단의 목회자를 만나고, 더욱 용기를 얻었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성공개회를 위해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기인대회 조직을 보면 발기인들의 합법적 인준을 위해 중경회장, 원로목회자 및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기인들은 다시 모여 수정한 다음 3월 달 정도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대회의 목적과 방향은 화합과 치유, 세계 평화, 분단 남북 하나로, 영원구원이 목적이 다고 말했다.

웨신 대한노회 2013 신년하례 및 수련회 열어



대한노회 장한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1월 14일~15일까지 이틀간 2013년 신년하례회 및 신년수련회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승리교회(오상렬 목사)에서 대한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가졌다.

교육부장 오상렬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김정미 목사(교육부 서기)가 기도를, 유운주 목사(회계)의 찬양이 있는 후 대한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스가라서 4:6~10절을 중심으로“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오상렬 목사(교육부장)의 광고와 노회장 장한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대한노회는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교육부장)의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열정과 노회원들의 불타는 기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집회가 되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감사로 한 이틀간의 특별세미나에서 노회원들과 성도들은 성경공부에 감동을 받았으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성령충만으로 목회자들이 영적충전이 되어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는가 하던 화기에어려운 가운데 이틀간의 세미나가 막을 내렸다.



대한노회 특별세미나

법무부, 포항교도소 제1회 전국 합창콘테스트 개최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방지 대책 및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교도소에 금일(2013년 1월 30일)두 번째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한 포항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지상 2층의 연면적 412㎡로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임상심리학 박사 1명, 임상심리사 3명 등 8명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전담 교도관이 배치된다.

포항교도소에서 개원한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는 아동 대상?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중 재범 고위험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자 등 성폭력사범 중 고위험군에 대해 6개월간 300시간 이상 임상면접,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분노조절훈련, 집단상

포항교도소 어울림 합창단에 최우수상



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3년 중으로 대전지방법교정청 및 광주지방법교정청 소속 기관에도 차례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하고, 2014년에는 부산?경남지역에도 이를 추가

로 마련하여 전국을 거점으로 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원식 후에는 평소 합창반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공헌활동을 해온 5개 교정기관 수형자 합창단이 모여 제1회 전국 수형자 합창 콘테스트를 가졌다.

이번 참가팀은 제주여자교도소 하모니합창단, 김천소년교도소 드림합창단, 포항교도소 어울림합창단, 대구구치소 모범중창단, 안동교도소 물물이중창단이며, 평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실

력 있는 팀들로 ‘산촌’ ‘사랑하면 할수록’ ‘눈’ ‘여자를 내려주세요’ ‘키리’ 등 다양한 주제곡으로 경쟁하였으며 장려상으로는 안동교도소 물물이 중창단, 김천교도소 드림중창단, 대구구치소 모범중창단이 되었으며, 우수상은 제주여자교도소 하모니 합창단이고 최우수상은 포항교도소 어울림 합창단에 돌아갔다.

이번 합창콘테스트를 위해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구치소 펠리체 교정합창단(단장 이현주, 지휘자 최인선)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10만 국민대합창으로 유명한 월드하모니 합창단(단장 이상목, 지휘자 강은규)이 특별 출연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관재진 법무부장관은“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육의 진일보를 상징하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이 향후 안전한 사회구축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며, 또한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수형자들의 합창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합창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방지교육으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에서 이기학 기자 (포항지사장)

(사)한기보협“성명서”

“아우가 죽어서 장례 치르러 왔다! 한기총은 회개하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와 협의회 각 교단장 및 직원들은 1월 16일~18일(금)오후 2시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아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왔다. 한 일에 두 허를 가진 한기총은 회개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두르고 서서 침묵시위 및 기도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보협은 WCC 신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W.C.C 부산총회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한국기독교총



한기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W.C.C 부산총회 성공적 개최에 협력을 약속하고 네 가지의 항목에 공동선언문을 서명하고 발표했다. 또한 한기보협 이범성 대표회장은 성명서에서 14일 한기총은

제24-1차 실행위원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 추진함에 대해 한기총의 정체성이 의심스럽고,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지지선언한 것은 하나님과 모든 교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며 침묵시위를 강행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인관 사무총장을 비롯 직원들이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면서 한기총 방문을 요청했지만 한기보협은 아우가 죽어서 장사 치르러 왔는데 죽은 자들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침묵시위로 맞섰다.

한기보협 한 관계자는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W.C.C를 적그리스도요 사단의 집단이라며 강력히 W.C.C 부산대회를 반대해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성명서를 내는 등 보수를 주창해왔다. 하지만 그토록 믿었던 대표기관이 어떻게 W.C.C를 지지하고 아합을 감행할 수가 있는냐며 10월 부산대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창단



“본 단체는 지저스타임즈 자매 단체로서 기독교 언론의 사명과 한국교회와 기도원 부흥에 일조하는 건전한 초교파 부흥사 단체입니다”

시대의 사명 감당할 부흥사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성중앙교회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상임회장



홍향표 목사
경목총회



회원명단

이효은 목사, 정기남 목사, 정기환 목사, 소진우 목사, 곽영민 목사, 김동기 목사, 박수영 목사, 정대성 목사, 박양우 목사, 유운주 목사, 주은총 목사, 송미순 목사, 전진성 목사, 정성준 목사, 여현관 목사, 강신숙 목사, 이기학 목사, 윤광석 목사, 김명옥 목사, 한춘희 목사, 임요한 목사.

지저스타임즈(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검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웹하드: I.D-cpjkr, P.W-km1122

한경총 2013 신년하례 및 구리경찰서 방문

전국 16개 지방경찰청과, 249개 경찰서 복음화에 역점을 다짐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 허 식 총회장)는 구리시 우리즐거운교회(전남호 목사)에서 2013년 신년하례식을 갖고 구리경찰서장 정은식 총경의 초청으로 다채로운 위문행사도 화답회를 갖는 등 덕담을 나누었다.

사무총장 홍한표 목사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감사 이효은 목사의 개회기도, 서기 양미상 목사가 성경 뱀전 1:13~16절을 봉독하고, 즐거운교회 중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한경총 허 식 총회장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허 총회장은 1.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2.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라” 3. 거룩한 자가 되고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공직자나 주의 종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이 시대와 민족을 책임질 사명자라고 했다.

입법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서 난장판을 벌이는 것, 사법부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경찰관이 도둑과 함께 도적질하는 것, 주의 종들이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은 것, 등은 역주행하는 자동차와 같다면서 거룩한 삶으로 각자가 맡겨진 사역에 충실할 것을 直視했다.

이어 구리시 토광지구대 소장 서미숙 경감은 “한국경목총회가 구리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고 경목총회 허 식 총회장 등이 구리시 우리즐거운교회에서 2013년 시무식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리경찰서장 정은식 총경을 대신하여 환영사를 대독했다.

아울러 총회장 허 식 목사는 신년사를 전한 후 임해숙 목사(부천방주교회), 박용숙 목사(주성청각장 애인교회), 박동호 목사(한기보협 상임회장)들을 한국경목총회 제35대 경찰선교회 중앙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남호 목사(우리즐거운교회)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김종순 목사(전 경찰청 경목실장)가 격려사를, 이효은 목사(한경총 감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 1.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2. 대통령과 박근혜 새 당선인을 위하여, 3. 경찰선교 김기용 경찰청장과 13만 경찰관들을 위하여, 4. 한국경목총회와 경찰선교를 위하여 임기서 목사(이사), 조길봉 목사(이사), 김창룡 목사(부회장), 전남호 목사(이사) 등이 기도했다.

이어서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언론대표)가 헌금기도를, 우리즐거운교회 찬양단의 난타가 있었으며, 사무총장 홍한표 목사가 광고 및 사업 보고가 있는 후 서울경찰청 고문 박한규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 서기 양미상 목사 진행으로 행운권 추첨을 갖고, 부회장 이창식 목사의 오찬기도로 우리즐거운교회에서 마련한 만찬을 즐겼다.

한편 이날 한경총 총회장 허 식 목사와 임원진 일행은 구리경찰서

를 방문하고 구리경찰서장 정은식 총경의 환영사에 이어 허 식 총회장의 격려와 인사가 있는 후 총회장 허 식 목사는 전남호 목사, 박용숙 목사 등에게 공로 포상을 전달하고, 유철규 목사, 임기서 목사, 조규성 목사, 김창용 목사, 정기남 목사, 이효은 목사, 김용근 목사 등에게 구리경찰서장 정은식 총경을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허 식 목사는 13만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전국 16개 지방경찰청과, 249개 경찰서를 방문하고 경찰관 위문, 기동대 위문, 전경대 위문, 경찰특공대 위문, 유치장 위문, 모범경찰관 표창, 환자 위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많은 연중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하여 전국지역 순회 세미나 및 영상집회를 지방별, 시도별, 지역구 별, 교회네트워크 등으로 경찰복음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전국 경목총회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CTS기독교TV 2013 기독교 콘텐츠 허브로 도약을 다짐

올 한해 CTS는 100만 영상선교사와 사역의 10가지 비전 밝혀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노량진 사육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2013년 CTS의 비전을 소개하고 2013년 클라우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대륙별로 새로운 선교의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CTS 감 회장을 비롯한 주요임원들이 참석, 최근 CTS 의회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올해 펼쳐질 섬김과 나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검찰 무혐의 처분과 상대 진정인에 대한 입장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여러 차례 혐의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무혐의로 밝혀진만큼, 더 이상의 무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교계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진정 세력들이 누워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사업 비전 설명에서 감경철 회장은 “젊은 사용자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활용도를 높여가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가 대세인 시대의 영상선교 방식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그 영향력을 더욱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지난 1일 개국한 웹TV 청년채널 ‘CTS Y’와 앱 라디오 ‘CTS R’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한민국 기독교 콘텐츠의 허브로서, 영상선교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CTS는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국내외의 모든 콘텐츠들이 완성되면, 전세계 선교지에서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TS는 개국 이래 17년 동안 섬김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2012년까지 방송을 통한 불우환우 수습비로 1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전 세계 파송된 4백여 명의 선교사들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TS는 이를 더욱 확산시켜 차별화된 전략으로 순수복음방송을 확장하고, 동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종합미디어로 비상한다는 포부다.

한편 감 회장은 2013년 CTS 사역의 10가지 비전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10대 비전은 △기독교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핵심역량 강화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최고의 기독교 방송으로 자리매김 △순수복음방송 사역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기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을 통해 기독교 미디어의 허브 구축 △국내 전시사 사육 건립과 재정 자립 △100만 영상선교사와 5000명목회교, 7000 기도용사를 늘려 안정적인 재정확보 △전 세계 주요 지역 영상선교센터 설립 △교계와 적극 소통하여 명실상부한 기독교연합기관으로 발돋움 △주말 교회학교 프로그램 제공 및 교회 주일학교 부흥 운동 △미지립교회 지원과 작은 교회 섬김운동 전개 등이다.

또한 해 동안 종자연 등 안티기독교에 대응하고 한국교회 신뢰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성탄 축제 및 단기선교동영상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기독교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3D 애니메이션으로 주일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허미와 친구들’ 등 주일 학교 부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감 회장은 “본래의 사명인 영성의 활용을 교계에 전파해 왔다. 지난해까지 1900개가 넘는 전국 교회와 해외선교사가 CTS가 제공하는 서버를 통해 클라우드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목사 아들에 교회세습 통과!

투표 없이 만장일치 통과 “적법한 절차 거쳐 문제 없다” 선언

성남성결교회는 20일 오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이용규 목사의 아들 이호현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참석 교인 211명의



이용규 목사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교회는 이날 사무총회에서 이호현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는 사안을 안전으로 올리고, 교인 중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으나 회중석에서 아무 대답이 없자 투표 없이 동의와 재청을 받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 국교회의 목회직 세습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커

지고 있다. 세만연은 ‘교회 세습의 부당성과 한국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자료를 교인들에게 배포하며 시위했지만, 한 교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세만연은 “성남성결교회의 세습 현상을 통해 교회 세습이 대형교회

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성결교회 측은 교인들이 원했고, 적법한 청빙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국교계의 교회 세습은 신년벽두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분	시간
새벽기도회	새벽 5:0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실만한물가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스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2013년 1학기 수강생모집



김동기 목사

▶명품속독 지도사과정◀

수강신청문의: 010-9119-7661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퓨리탄 장로회 한국총회 퓨리탄 신학대학 대학원



총장 서영웅 목사(박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08-1번지 대지빌딩 6층
☎ 042) 253-7337. 010)6503-3022

세계기독교평화군단

사관학교(학사 석사)



대전학장 박양우 목사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257 번 길 40
(구, 남월동 611 석천들시 106동 1102호)
☎ 042)526-6378 010-2872-4357

에녹 부흥 사관학교



교장 김명옥 목사

-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13:00
- ◆ 내용 : 바이블시티 맥 잡기, 부흥사 연수
- ◆ 장소 : 할렐루야 교회 (<http://cafe.naver.com/swhc>)
- ☎ 문의 : 010-7707-4319, 010-2080-0651

교재 및 식사 무료 / 회비 없음



대표 권영민 목사

서울 양천구 신월1동148-19(2층) ☎ 010-7707-4319, 010-2080-0651

퓨리탄 신학대학 대학원 서울 캠퍼스



학장 서화평 목사(박사)

서울시 중랑구 묵1동 156-2 (열린속복교회)
02) 979-0675, 011)9409-9115

미래목회포럼, 신년하례회 열고 공교회의 거룩성 회복 다짐

이사장 정성진 목사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하자”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이 1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세상의 소금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신년하례회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대전세로남교회)

1부 예배는 장학일 목사(예수마음교회, 포럼 진행위원장)의 인도, 고신교단회장 신상현 목사(울산미포교회)의 기도, 대변인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의 성경봉독, CTS장로중창단의 특송, 한장총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수원 명성교회)의 설교, 이사장 정성진 목사(거룩한 빛광성교회)의 환영사, 지도위원 손인웅 목사(덕수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한장총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는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스더 4:13 ~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목심을 버리고 협력해서, 공명하는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석을 놓자”며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의 방향을 잡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여러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불협화음 없이 이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하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2부 신년하례회는 포럼 부대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의 사회, 대표 오정호 목사(대전 세로남교회)의 신년메시지, 상임이사 최이우 목사(종교교회)의 특강, 이효상 사무총장의 2013년 주요 7대 사업 및 일정보고와 제주지역대표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의 오찬기도, 정책부의장 주대준 부총장(카이스트)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대표 오정호 목사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내우외환의 중심에 서 있지만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정신을 가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면 영적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십자가정신으로 거룩성을 회복하

는 한해가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년사를 전했다.

이날 ‘선교 13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미래 로드맵’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최이우 목사(상암이사)는 “탐임목사는 은퇴하는 순간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최 목사는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영성의 목회로 돌아가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연합으로 돌아가기, 섬김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이효상 사무총장은 올해 7대 사업으로 △마음공동체운동 전

개 △한국사회 통합형 리더십 조명 △미래목회포럼 설립 10주년 기념 정기포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기도회와 캠페인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포럼 △성탄송 페스티벌 △2014년 선교 1백30주년 재조명 작업 등 7대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10대 지역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CBS 이재천 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 및 격려사를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세금문제 등 주요현안을 놓고 ‘한국교회정책회의’를 2월 14일(목) 오후 5시부터 15일(금) 낮 12시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나팔을 불며 행진하자” 잘사는 경기도로 축복

경기도지도자 초청 신년조찬기도회 열어

경기도지도자 초청 신년조찬기도회가 지난 17일 오전 7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려 “잘사는 경기도, 축복받은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덕담으로 시작됐다.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 총회장 서정달 목사)에서 주최한 이날 기도회에서 총회장 서정달 목사(조원교회)는 “15,000교회, 350만 성도가 있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200만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면서, 잘 사는 경기도, 축복받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연합회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전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김병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부총회장 고희식 목사의 기도, 서기 장현승 목사의 “민수기 10장 9~10” 성경봉독에 이어 소강석 목사(새연교회가)가 “나팔을 불며 행진하자” 제하의 설교를 했다. 소강석 목사는 “행복한 경기도를 이루기 위해 복음의 나팔, 믿음의 나팔, 축복의 나



팔을 불며 행진하자”면서 “한마음 한뜻 한비전으로 섬기면서 나갈 때 경기도 복음화의 기수가 되고 아름다운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대통령을 위하여, 경기도 도지사과 각 기관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신앙회복을 위하여, 경기도 복음화를 위하여, 청소년 범죄와 자살예방을 위하여” 각각 배국순 목사(평기연회)와 조주환 목사(부기연회), 진희근 목사(고기연회), 하용달 목사(광기연회), 윤호균 목사(시기연회)

등이 기도를, 주남석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했다. 또한 수원장로합창단의 찬양, 총회장 서정달 목사의 인사,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인사, 이재창 목사(증경총회장)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강경람 경기지방경찰청장, 고희선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백재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축사, 최승균 목사(사무총장)의 내빈소개 정찬수 목사(회계)의 광고, 김영진 목사(직전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기총, 국회의원 연금법 재고하라 촉구



총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최근 국회의 원 연금법 관련 예산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것을 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제 밥그릇 챙기기’와 같은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예산을 국민들이 이해했는가? 국회의원 연금법은 1991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를 법적 차

원으로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헌정회 자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던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삭제된 것, 2010년 연금법 개정안에서 기존에 ‘금고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 등은 자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철저히 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선거철마다 들리는 말이겠지만 말 그대

로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삶,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단 하루만 국회의원배지를 달아도 헌정회에 소속되어 65세 이상만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삶보다 자신들의 삶이 우선한다는 것이라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준 권한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들만 원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바꾸기도 한다면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생각하기 전에 앞서 무엇이 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법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WCC 대표단 환영을 겸한 교계지도자 모임

WCC 제 10차 총회 정의와 평화 실현 기대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30일 잡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WCC 대표단 환영을 겸한 교계지도자 모임을 가졌다.



김상환 목사

준비위원장 김상환 목사는 인사를 통해 “3년 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염려속에서도 기도로 WCC 제10

차 총회를 준비해왔고, 이제 10달을 남겨두고 WCC 총대님을 비롯해서 8분이 방문해서, 현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기도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WCC가입교단인 기감의 김선수를 통해 “3년 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염려속에서도 기도로 WCC 제10

차는 “WCC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10차 총회가 정의와 평화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며” 환영했다.

박형규 목사(남북평화재단 이사장)는 “민중화운동을 하다가 징역 15년을 언도 받았으나, WCC 전 세계 기독교 동지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독재정권에 항의하여 10개월 만에 석방되었고, WCC 덕에 살아남았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10차 총회가 한국이 새롭게 되고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명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한기총)는 2013년 1월 13일에 W.C.C 제10차 부산총회 개최에 대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회원일동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작금의 한기총의 행동이 하나님과 모든 교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보수를 지향한다고 누누이 천명하여 왔던 것이고 그러한 입장표명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지난 2012년 4월16일에 대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성명하였다. 성명서에 입장을 밝히기를, W.C.C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반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받은 단체로 10개 항목으로 제시하여 규정하였다. 그러한 한기총이 지금에 와서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대한 지지선언은 하나님과 모든 교회를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 동안 한기총은 보수를 표방하면서 W.C.C에 대하여 수 없이 적그리스도라고 설교하여 왔었다. 이러한 한기총은 지금에 와서 W.C.C 부산총회 개최를 지지한다는 것은,

첫째,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며, 둘째,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그동안 속인 사실이 명백하며 셋째, 하나님의 권위와 한국교회의 위상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추시킨 장본인이며 넷째,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앙을,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은 W.C.C 부산 총회 개최를 지지하여, 그동안 취한 입장 철회 명목으로 4개 조항을 내세웠으나, 이는 W.C.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 된 몇몇 사람의 논건이며, 위선이며 개략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오늘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시대에 보수 신학과 보수 신앙을 지켜 후대로 전승하기 위하여 중심축이 되어서 보수 신학과 신앙을 지해하는 무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수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단체들은 다 일어나서 힘을 합하여 W.C.C 부산총회 철회를 관철시지자.

주후 2013년 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회원일동



김평호 목사 복흥성회

(회개+감사+응답+치유+축복+능력)

일제(년/월)	일자(일)	내역
2012년 12월	3일-7일 10일-13일 18일 29일 30일-31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인천(열매교회) 서울(에베소서) 서울(이화목자교회) 전주(은일교회)
2013년 1월	7일-10일 14일-17일 27일-31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수원(기도원(카리스마부흥사회)) 기도원(삼리(문종문부흥교회))
2013년 2월	4일-7일 11일-14일 27일-21일	열두광주리기도원(정호 목사) 광명(임마누엘교회) 중랑(생수기도원)
2013년 3월	4일-7일 11일-14일 18일-21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열매(기도원) 첫사랑교회
2013년 4월	8일-11일 15일-18일	열두광주리기도원(예수(전)) 별양(기도원)
2013년 5월	6일-9일 13일-16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인천(민영교회)



○ 열두광주리기도원
○ 선한목자부흥사의 대표
○ 한민족(바)비밀교회부흥지
○ 카리스마부흥교회부흥지

○ 열두광주리기도원(매월)주최
○ 선한목자부흥교회(월)주최
○ 2013년 부흥성회(연주중)

경기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31-4
김평호 목사 010-8411-0191

다니엘서 강해 (IV)

다니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다니엘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말한 것인가? 바로 말한 것인가? 왕의 면전에 서서 바로 말한 것이다. '기도해 보고 말해 주겠다', 혹은 '금식 20일 하고 꿈을 알려 주면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간만 주면 바로 알려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다니엘처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다니엘의 지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는가?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말로 묻는 자에게 답해야 한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순교신앙에서 있다. 게다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깨닫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 왕이 꿈 꾸어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한다. 왕에게 꿈을 꾸게한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나,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 줄 것이라고 확인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담대하게 꿈을 알려주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신앙이다. 이것이 큰 믿음이다. 다니엘의 신앙이 이렇게 높은 것이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믿음이 위기시에 담대히 확신으로 말하게 된 것이다.

(2)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을 더불어 죽임 당하지 않으려함(18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네 명이 자기들의 목숨이 바벨론의 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 쉽다. 문자대로만 알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들어가면 바벨론 현자들은 잡신을 섬기고 있고, 잡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왕의 꿈을 알 도리가 없다.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꿈을 알지 못해 죽게 되었다.

만약 그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는다면 다니엘의 하나님도 바벨론의 잡신과 똑 같이 잡신으로 취급되고 마는 것이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인데 잡신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신이신 하나님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해주셔서 잡신을 섬기는 박사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게 참신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잡신과 똑 같이 취급 받지 않게 하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명예, 인격이 올바르게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한 것이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한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와 같은 맥이다. 18절의 다니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 것과 같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잡신과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사편 23편에서도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즉시 응답된다(19~23절).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꿈과 해석을 고하여 그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두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다섯 부분으로 된 신상(31~45절)
느브갓네살왕이 꿈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2장 31~35절까지요, 그 꿈의 해석을 기록한 부분이 2장 36~45절까지다. 그 꿈에 나타난 큰 형상은 우상을 섬기는 제국이고, 우상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신상은 다섯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왕국, 금 머리는 바벨론이다(32절

上, 37~38절).

둘째왕국,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파사다(32절 中, 39절 上).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으로 첫째왕국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20절에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수양은 메대와 파사왕들이요"라고 해석해 주고 있다.

셋째왕국,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라는 헬라제국이다(32절 下, 39절 下). 39절에 '또 다른 셋째왕국'이라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다니엘 8장 21절에서('그 거친 수염소는 헬라왕이며') 헬라를 가리킨다. 넷째왕국, 철 종이라는 로마다(33절 上,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다니엘 11장30절에 '깃딤의 배'가 나오는데 로마 함대를 말한다. 단8:21절에 헬라제국이 먼저 나왔는데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가 로마제국이다.

다섯째왕국은,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으로 된 발은 열 발가락으로 되어있다(33절, 41절). 42절에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즉 '또한 ~그 왕국'으로 말한 것은, 넷째왕국 다음에 세워질 다섯째 왕국임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다. 열 발가락은 열 나라가 연합을 이룬 나라다.

어떤 나라는 철같이 강하고, 어떤 나라들은 흙처럼 약하다. 43절에 사람의 씨가 섞이고 인종이 서로 섞인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즉 열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 하지만 그러나 한 단일 민족국가는 아니다. 이루지는 못한다.

10발가락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10왕과 같으며, 제13:1절의 일곱 머리 열 뿔 짐승과 연결되고, 이 왕국은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환란 날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다(10개국 공동체 1국가 형태임). 느브갓네살왕의 꿈에 나오는 신상이 다섯 부분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그것은 바벨론을 시작으로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 순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우상제국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시광교회 담임
웨스턴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럼 퓨리탄 장로교회 목사 서 영웅(JTNTV방송 상임이사)



오! 솔로미오

우리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새해의 태양이 솟아 오른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모든 메스콰는 정치면에 집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앞으로 정부 행정 조카까지 보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역사에 처음인 여성대통령의 거취에 국민 모두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있다. 모두가 발전과 희망의 정치로 잘살아 보자는 것이다. 여성대통령으로서 내약함이 아닌 강력한 정치로, 한국정치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간첩을 비롯한 좌경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정 사회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정치세력에 끼어 있는 좌파들을 완전 제거하여, 정치안정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작은 불씨는 초가 삼칸을 태울 수 있는 것이다.

국방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말은 군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 북한 인민군은 5년이라는 복무기간으로 전투에 힘을 기르고 있다. 우리도 60년대에는 만 3년의 군복무를 했다. 당시의 배고픔과 추위를 무릅쓰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훈련으로 전투에 자신을 갖도록 했다.

강군을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의 복무를 해야 한다. 검도, 유도, 태

권도의 연습도 유단자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혹독한 연습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새 정부가 막강한 국방을 위한다면,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3년의 군복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완전히 훈련된 병사로 적과의 전투에 자신 있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철저한 무장과 강한 정신으로 대처하여, 다시는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있다면 즉각 대응은 물론 북한 전역을 완전초토화시켜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새마을 운동의 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종소리였다. 새마을 운동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진행시키기 위해, 새마을 교육을 하였으며 국가 재건을 위한 신념으로, 공무원들을 비롯한 정계지도자 모두가 재건 복을 입고 새마을 운동에 전념하였다. 새마을 노래를 보급하여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일어나 마을 청소를 비롯하여 개천공사, 지방개량 등 급속한 변화로 국토전체가 새마을로 형성되었다. 모든 교회는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 종을 울렸다. 새벽종소리를 들

으면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교회의 새벽종은 한국 교회의 부흥 역할을 했으며, 새마을 운동을 불러일으킨 요인이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모두 모두 일어나, 새마을 가꾸세~"

새마을 노래는 곡도 쉽고 가사도 좋았다. 누가 작곡 작사 했지는 잘 모르나 새마을 노래는 온 국민의 힘을 모은 것이며 발전국가에의 초석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하여 좋은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우리가곡을 많이 가르쳤으면 한다. 가곡은 노년이 되어서도 잊혀 지지 않고 추억으로 남아 좋은 심성을 가져 다 준다.

오! 솔로미오는 이태리가곡으로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면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면, 하늘의 밝은 해는 비추인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여성대통령의 정치행보에, 오! 솔로미오의 노래를 드리고 싶다. 강하고 아름다운 맑은 햇빛만 비추이는 평화로운 발전국가를 희망한다.

요약설교

깨어진 옥합 마가복음 (14:3~9절)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반면에 별것 아닌 이야기도 나온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4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어보자!

1. 옥합이 깨어진 의미

본문에 옥합이 깨어진 것은 우연히 깨어진 것이 아니다. 옥합의 주인인 여인이 갠 것이다. 그러므

로 옥합이 깨어지기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이 깨어진 것이다. 그 여인은 형편없는 창녀요 7 귀신 들렸던 자요 죄인으로 낙인찍힌 여인으로 어둠 속에서 지내던 여인의 마음이 깨어진 것이다. 옥합이 깨어져 향기가 나듯이 마음이 깨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히 나타낸 것이다.

2. 여인이 깨어지듯이 우리도 깨어져야 한다.

옥합이 깨어져 향기가 나듯이 우리도 깨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

를 나타낼 수 있다. ①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져야 한다. 본문의 여인은 옥합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다.

②인생관 마음, 탐심, 욕심이 깨어지자. 깨어지는 데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깨어진 것은 깨어져야 한다. 일이 깨어져야 병이리가 나온다.

3. 주를 위해 깨어져야 한다.

제자들은 옥합을 깨트리라는 것을 해비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비라고 보지 않았다. 그렇다 오늘 나 자신의 가치관이 여지없이 깨뜨려져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나 자신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뜨리고 출발하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개신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살리는 신학과 살아있는 목회자와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정』입니다.



■ 학위과정 : 국내학사(신학, 사회복지학), 석사(신학, 목회학, 교정학, 사회복지사) 박사(사회복지학, 교정학, 목회학, 신학박사), 기타학위과정

■ 자세한 문의 : 담당 과 동훈 박사
(010-7405-9191)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설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막2:7)

담임목사 정일랑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사론) 전도사 : 험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홍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원호,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드럼 : 유해란 김효정
신디 : 김인영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예배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일

홈페이지 http://hgio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란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보혜사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계백사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주세영목사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주세영목사	오전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대학부예배	오전 5시	5층 두란노홀
주일	유아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방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유중등부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영양분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그리스도교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하나님의 영감인 성경계열과 감동인 성서계열

지난번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성경기록의 근원과 그 내용을 제시하신 말씀인 성경은 기록과 교리의 근본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잘못 번역하여 기록과 근본이 되는 교리를 교훈으로 혹은 가르침으로 번역하여 참된 진리에 이르기보다는 교단의 교리에 역마쳐 성경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단의 교리와 총회의 결의에 권위를 주장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교단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하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교단 교리에 치우치면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반호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2.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중립사본 계열인 연합 성서공회원문 혹은 대한 성서공회 원문은 하나님(God,上帝)과 신(god, 神)을 혼동해 놓았다(창3: 5, 단3: 25). 신(god)을 하나님(God)으로(창3:5),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들의 아들'이라 번역하였다(단3:25). 이 교도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번역했다(행17:22~23). '하나님'(God)이라는 단어를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바른 성경)단3: 25: 왕이 말하기를]“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하였다. (직역성경)단3: 25: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보라! 나는 지금 네 사람이 풀린 채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다.”(홍정역 성경)단3: 25: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더라.

ㄷ. 단전 3:16절에서는 하나님(God)을 그(He)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의 신비를 밝혀 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 그런데 다수필 사본 성경계열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은 '하나님(God)'을 '그(He)'로 바꾸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경)단전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바른성경)단전 3:16: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를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가운데 올리우셨다.”(원어신약성경)단전 3:16: 또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영광에서 올리 지셨느니라. (홍정역 성경)단전 3:16: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원어신약성경, 홍정역)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계열(개역성경, 개역개정판성경, 바른성경)

40회 이상 삭제하므로 하나님론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ㄱ. 창3: 5절에서 '신' 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개역성경)단3: 5: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개역개정성경)단3: 5: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른 성경)창3: 5: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때문이다. (직역성경)단3: 5: [신들 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 기 문이다. (홍정역성경)단3: 5: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

ㄴ. 단3: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신들의 아들'로 번역하였다.

(개역성경)단3: 25: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개역개정성경)단3: 25: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ㄷ. 단전 3:16을 포함하고 있는 300여 개의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오직 다섯 개의 사본 - 9, 12, 13세기의 후대 사본- 만이 '하나님(God)'을 삭제하고 있다. 사내사본 등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God'을 who로 추측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주후 265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스 등과 같은 초기의 증인들도 이 구절에 '하나님(God)'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후 400년 이전에는 배교 자요 이단인 오리겐만이 여기서 '하나님(God)'을 삭제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스페인의 발레라성경, 폴투칼의 알메이다 성경, 루터의 독일어 성경 등 세계 전역에서 사용 되어온 역본들이 모두 "하나님(God)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입증 한다.(개역성경본석 p22)

(개역성경)단전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개역개정성

경.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God is a Spirit)에서 부정관사 'a'를 삭제하므로 '하나님의 영'(Spirit)과 '마귀의 영'(spirit), '천사의 영', 기타 '사람의 영' 등으로 혼동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개역성경)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개정성경)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른성경)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원어신약성경)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와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홍정역 성경) 요4:24: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김수정 원장

본지 운영이사
H.P 010-7520-7651



개역 및 개역신약전서 검증소고 (1)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기록한 원전에 해당되는 것인지 번역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교지역에 전파된 복음을 그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되 원어연구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자제는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하나의 중요한 선교전략으로 삼아왔다. 기독교는 그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선교지에서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원어연구를 필수과정으로 여겨왔다. 언어가 없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였고 이미 그 지역의 언어와 문자로 기독교의 성경적 문화를 그 지역에 확산시키면서 선교 및 전도활동을 하여 왔다.

이러한 일은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 그와 같은 작업이 시작 되었고 1882년 중국 심양에서 누가복음이 최초로 번역 되어서 국내에 은밀히 보급되기도 하였다.

자금의 개역성경은 소화 40년 서기 1940년에 영국해의 성서협회의 협조로 번역 및 간행 되어서 한국교회의 주류 성경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그 개역성경은 번역한 원전의 이름이 없어서 어떤 원전에서 번역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 후 번역 상 문제점들의 비판이 심하자 표준성경을 발간하였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자 1995년 10월 창립 100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고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그 신약전서 개역개정판도 번역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표준번역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역판이나 개역개정판을 검증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헬라어 원본 TR본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일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적 산물로 원어신약성경을 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헬라어 원어에 근거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을 축자적으로 번역하고 그 말씀을 지지하는 중요한 영어성경을 대역할 뿐 아니라 같은 단어를 유사하거나 다르게 번역한 예문들을 제시하여 그 뜻의 다양성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소고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 취급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취급해서 독자들이 이해를 돕고 좀더 바른 성경번역의 실체와 번역상 문제되는 말씀들을 제시하여 한글 번역관의 번역수준을 살피려고 한다.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헬라어 원어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 그 원어에 대한 영어판 축자대역을 세 번째로 그것을 개역 및 개역개정판과 비교번역해서 그 번역의 오류를 수정 및 개정하는 절차를 따를 것이다.

1.생략문제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의 개역판과 개역 개정판이 기본으로 사용했던 헬라어 원전을 알 수 없어서 TR본을 기본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헬라어 원전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자의 구성단어들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중에서 중세이후 동서양 기독교에서 가장 널리 헬라어원전으로 사용하였던 TR본이다.

Textus Receptus는 코이네 헬라어 사본의 95%와 일치하고 Majority Text, Byzantine Text, Syrian Text라 부르고 Miles Coverdale's Bible (1535), Matthew's Bible (1500-1555), The Great Bible (1539), The Geneva Version (1560), The Bishops' Bible (1568), and the King James Version (1611)의 원어이고 The Peshitta Version (AD 150),

The Italic Bible (AD 157), The Waldensian (AD 120 & onwards), The Gallic Bible (Southern France) (AD177), The Gothic Bible (AD 330-350), The Old Syriac Bible (AD 400), The Armenian Bible (AD 400)The Palestinian Syriac (AD 450), The French Bible of Olivetron (AD 1535), The Czech Bible (AD 1602), The Italian Bible of Diodati (AD 1606), The Greek Orthodox Bible를 포함하며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5,300의 95%와 일치해서 the Majority Text 라 부르며 초대 교회 교부들의 인용구 86,000의 대다수와 일치하고 애급 철학과 신앙에 오염되지 아니하였고 창세기의 창조기사, 동정녀 탄생, 구세주의 기적들, 구세주의 육체적 부활 그의 문자적 재림과 그의 피의 정결능력들을 강하게 지지하여 천주교의 강력한 적이다.

1633년에 출판업자였던 아부라함엘 리자벨(Abraham Elzevir)과 그의 조카 보나판추라(Bonaventure)제작한 1633년 판의 서문에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 translated" so you hold the text, now received by all, in which nothing corrupt-



그같이 여러분은 본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채택하였으며 거기에 변질된 것이 없다)에서 대격 "textum receptum"을 주격 textus receptus 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는 TR본이 가장 완전한 헬라어 성경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사본 중에서 완전한 헬라어 원전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개혁이후 많은 성경번역에서 헬라어 원전으로 사용했던 TR본이 대중성을 가졌고 가급적 초대교회이후 교부들과 헬라어 사본들의 인용구들을 많이 포함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헬라어 성경으로 택하였고 그 성경에 기초해서 검증을 하였다.

우리가 검증하는 대한 성서공회의 개역판이나 개역개정판은 서문에서 어떤 종류의 헬라어 원본을 사용했는지 언급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검증에서 TR를 사용한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음"이라는 구절이 이미 사본에 있는 헬라어 원전은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에 역행하기에 그러한 구절이 없는 원본보다는 그러한 원본이 있는 TR본을 원전으로 택하여 검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원전에 있는 기록물을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생략은 번역과정에서 절대금물이다. 특히 글자 하나하나 신학적 의미가 있는 성경에서 있는 단어를 번역하지않는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영어성경 번역관들을 참조하면서 생략이 거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번역상 차이는 있지만 있는 단어들을 고의적으로 생략해서 본래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번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선교초기에 복음을 모르던 한국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적인 번역조작이 매우 심하였고 그중의 하나가 성경 번역과정에서 오역이다.

<다음호에 계속>
송종섭 박사 저

송종섭 박사 원어신약성경 한헬영어 축자 대역판 출간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은 TR축자대역 원어신약성경을 출간하고 시판에 나섰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원어신약성경은 3개국어로 축자 대역하여, 원어의 뜻을 최대한 정확히 번역하고 문장구조상 필요한 곳에서는 13종류의 영어성경과 개역판들(개역개정판) 축자 대역하되 첨부는 원어에 없다는 표시를 하고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였다.

1. 킹,제임스역을 검증하였다.

짐승(계4:6)을 생물로 개정하는 것과 같이 잘못 번역된 단어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언어학적으로 지지가 높은 단어들(생물)로 개정하였다.(킹,제임스역의 번역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2. 개역판 및 개역개정판을 검증하였다.

신약 138,020개 단어 중 생략된 16,818(대부분이 접속사와 인칭대명사, 약12%)의 단어들을 보충 번역하였고 오역 의역 및 문장변개도 검증 후 개정하였다. 개역판 및 개역개정판은 원어 신들을 하나님으로(갈4:8) 오역하는 등 매우 심각한 오역이 너무 많다, 이반에 그 부끄러운 오역의 실체가 그대로 들어났다.

3. 비교번역을 하였다.

같은 헬라어 원어가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어서 영어성경 13권 중에서 원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적 단어를 비교해서 선택하였고 그 번역문을 각주에서 3,896개의 번역문으로 비교하였다. 예컨대 같은 헬라어가 (1)백성이 (2)군중 (3)무리들이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문자적 번역으로 공인되는 '백성'을 택하고 다른 번역문들은 각주로 제시하여 참고삼게 하였을 뿐 아니라 13권의 영어번역판을 아람어 성경과 대한 성서공회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너희는(ye

뱀들(ὄφεις-오페이스 serpents

같이(ὥς-호스 as

지혜롭고(φρόνιμοι-프로니모이 wise

또(καί-가이 and

비둘기들(περιστεραί-페리스테라이) doves

같이(ὥς-호스 as

순결(ἀκεραῖοι-아케라이오이 harmless

하라(γίνεσθε-게네스테이 be ye

4. 페쉬타 아람어 신약성경을 참고하였다.

최근에 발굴되어 등장한 166년도로 추산되는 페쉬타 아람어 신약성경을 참조하여서 신약번역에서 역사와 문헌학적으로 지지받는 단어들을 먼저 선택하였다. 각주에서는 아람어에서 십자가는 말둑(마23:34)으로 약대는 밧줄(막10:25)이라는 사실도 제시된 것이 원어신약성경의 특징이라고 본다.

원어신약성경의 특징은

1. 누구나 헬라어 원문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2. 헬라어 문법을 존중하였다.

1)명사(단수와 복수) 2)명사(동격문제), 3)접속사, 4)접속사 과, 5)인칭동사의 주어, 6)첨부, 7)원첨자와 아래 첨자, 구분하여 알기 쉽게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방법으로 독자들은 좀더 쉽게 헬라어 언어의 뜻을 영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영어 번역으로 헬라어의 뜻을 더욱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신 있게 권하는 이 원어신약성경은 말씀을 헬라어 원어중심으로 직접 이해하게 했다. 특히 원어신약성경 등장으로 한국교회는 매우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편저자 송종섭 박사 소개

대신대학교 졸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Maine, 뱅골신학교 수학, 미국 S.C.Erskine(연합장로교회 교단)신학교 졸업(M.Div,D.Min), 총회신학연구원 교수 역임, 한민대학교 신학부 교수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명교회 역임, 갈리리 신학연구원 신약학 교수, 신학원어연구소 회장



저서 및 역서

저서 '스미스 리 강해설교'(전 16권) 등 다수, 역서 '불빛 주석 창세기' '카일텔리취 주석' '알포드 원문 주석'(전9권) '벌커트 성경해석학' 등 다수

편저 '헬라어 소사전' '성경분해사전' '헬한대조 신약성경' '신약분석성경' '뉴바이블' 'KGE바이블-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다수



인물탐방 - 성령진리교회 담임 방윤희 목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반자 변화의 열매”

영성과 실력이 탁월한 여성목회자로 총평이 나 있는 분당 성령진리교회 담임 방윤희 목사(사진), 방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에 소속을 두고 있으며 부노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분명한 목회관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성회복 훈련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교회관과 예배관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교육으로 성도들의 신앙관이 바로 정리되고 있는 성령진리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담임 방윤희 목사를 만나본다.

○ 방윤희 목사는 고창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다. 어려서부터 고향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 사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하면서 많은 영적체험을 경험했다.

세월이 가면서 결혼은 했지만 시댁이 철저한 불교의 가정이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세월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시댁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중 시동생들도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었다.

저는 집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2004도에 목사가 되었다.

집사 때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성령체험이 강하게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저를 찾아오고 매주 드러지는 목요예배 및 영성훈련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저의 영성원에서는 말씀과

기도, 찬양은 기본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많이 받고 있다. 갑갑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조금만 터치해 해주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큰 효과가 나타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변화는 모습이 없다.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 또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분을 바라보면 열매가 있고 없는 것을 느끼를 통해 알 수 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에 힘쓰고 있다지만 영적으로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성품과 그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신다. 물론 교회에서 잘 가르쳐도 그 안에서 순식간에 열기가 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볼 때, 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원을 하게 된 동기도 성도의 노릇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신앙이 철이 들어서, 이 땅에서 먹고사는 의식주가 다가 아니라 성숙하면 내세준비도 하고 기쁨준비로 신부단장 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산다.

◆목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 찬양에 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욕심보다는 주어진 이 장소에서 하루하루 삶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일이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외도를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



을 보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을 인식하고 바로 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역하는 가운데 많이 보아왔다. 엄정 놀라운 일이다.

◆ 성령진리교회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이다.

목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목회자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초월하고, 영성은 비우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아서 날마다 나의 육체적인 속성과 혼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았던 사도바울처럼 저도 그러한 영성을 원하고 있다.

자신을 비우고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나고 나타난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화와 열매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 성도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신의 성품과 사상과 체질과 순종과 속성이 나를 통해서 들어나고 나타나야 한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속사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겉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서 정말 아버지께 신뢰받을 만한 목회자나 성도이나가 중요하다. 인격적으로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이 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많다.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교의 특성과 열성은 대단하나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나 유아적이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 화려하게 꽃은 피었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비롯해 각기 맡겨진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성숙하느냐 열매는 얼마나 들어내고 나타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목회의 길을 갖게 된 계기는?

많은 은사를 체험을 했고, 집사로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신학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 좋아하는 찬송은 214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며, 나의 좌우명은 첫째도 오직예수, 둘째도 오직예수, 셋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저의 목회관은“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반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을 어디서 보는가? 내 안에서 보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하시서 나를 성전삼고 계시며, 오신 것이 너무나 투명하게 인식이 되고, 신뢰가 되고 인정이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도 청결해지고 복이 있고, 의식주 복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 안에서 만났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저는 깨달았고 알았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자신을 비우니까 내 속이 천국이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천국인 것을 느낀다. 그냥 한귀로 듣

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이루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려고 한다.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고 생활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을 좋아한다. 목회사역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삶속에서 생활하고, 행할 때 그것이 사실이 되고, 실재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영성훈련원을 하라고 내게 허락하셨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있다. 물론 종교의 의식은 다 필요하다. 그러나 본질이 빠져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격 감동 희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맞본 자! 네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삶속으로 생활한 것을 영성훈련원을 하라는 응답을 주셨다.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머리 숫자만 세지 말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께 양보하고 맡기면 성령하나님은 직접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찬양시간에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설교시간에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순종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영성훈련을 하라하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성훈련원을 하게 되었다. 저의 목회의 방향은“변화와 열매”이다.

한편 이날 2013년 예정예신총회 중앙노회가 성령진리교회에서 신년하례회 및 교역자 월례회를 가진 후 담임 방윤희 목사(중앙노회 부노회장)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사단법인 신년하례연합예배 양정섭이사장

이사장 양정섭, 총재 김권현, 대표회장 박형렬 등 연합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사단법인세계개혁교회연합회, 사단법인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지난 1월 28일(월)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3개 교단 총회장, 총무 대표 등 200명이 모여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해를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와, 예정 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성경 창세기 45:5-8절을 봉독하고, 개혁종창단의 찬양에 이어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 “덕담의 신년하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대표회장은“선을 베풀며 이해와 용서하는 한해가 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

기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예장 예합총회 정 헌 목사가 기도를, 한기협, 세교연, 한개협 발전을 위하여 예장기 도총회 총회장 김정환 목사를,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증경총회장

양인천 목사가 기도 했다.

아울러 (사)한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신년사가 있었으며, 3개 단체장의 인사말씀은 대한예수교개혁총회 총회장 강하준 목사가 전하고 광고한 후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호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담임 정연수 목사

경구역

주일전례(부) 오전 9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일전례(부) 오후 12시(남부) 12시
주일전례(부) 오후 1시(남부) 1시
주일전례(부) 오후 2시(남부) 2시
주일전례(부) 오후 3시(남부) 3시
주일전례(부) 오후 4시(남부) 4시
주일전례(부) 오후 5시(남부) 5시
주일전례(부) 오후 6시(남부) 6시
주일전례(부) 오후 7시(남부) 7시
주일전례(부) 오후 8시(남부) 8시
주일전례(부) 오후 9시(남부) 9시
주일전례(부) 오후 10시(남부) 10시
주일전례(부) 오후 11시(남부) 11시
주

한국교회의 위기

성경(聖經)과 성서(聖書)를 구분하지 못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된다

한국 보수교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김지연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부터 1959년 W.C.C. 문제로 분열되었던 통합측 교단과 통합운동을 전개하므로 7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한성서공회로 환원한 사건은 한국 보수교단의 큰 위기라는 글을 본 신문에 3회(25~27호)에 걸쳐 기재한 적이 있다. 이것은 엄숙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한국 보수교단의 위기는 곧 한국 전체 교회의 위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과거의 이와같은 상황은 오늘에 와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W.C.C.를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측 장로교단은 이단 연류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교단이라 결의하고 W.C.C.를 반대해 왔었다.

그런데 국민일보 3013년 1월 13일자에 의하면 한기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W.C.C.와 상호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므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몇 년 전에 신문에 기재했던 내용을 약간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표하게 되었다.

1. 성서(聖書)는 많으나 성경(聖經)이 없는 한국교회

미국에서 1920년은 소위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현대주의(Modernism) 간의 치열한 싸움의 시대였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독교 진리의 지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한 싸움이였다.

『근본주의에 의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현대주의에 의한 기독교는 다른 한 종교이다.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인가는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세대에 의해 심중 팔구 해결될 문제이다. 기독교와 유교 사이처럼 깊고 냉혹한 싸움이 여기에 있다. 부드러운 말들이 그 차이점들을 감출 수 없다?!!?. 근본주의자들의 하나님은 다른 한 하나님이다. 근본주의의 성경은 한 성경이요, 현대주의의 성경은 다른 한 성서이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만물의 종말 - 이것들이 근본주의자들에게와 현대주의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르

다. 어느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어느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가. 어느 성경이 기독교의 성경인가. 어느 교회, 어느 하나님의 나라, 어느 구원, 어느 종말이 기독교의 교회,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종말인가? 미래가 말해줄 것이다.(Editorial 「Fundamentalism and Modernism Two Religions」Christian Century, Jan. 3, 1924, pp.5~6』

위의 글에서 지적한대로 근본주의(보수주의)와 현대주의(자유주의)의 서로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자는 성경의 독자적 온전영감(Verbal-Plenary Inspiration)을 생명처럼 소중한 여기는 반면 후자는 부분적 개념영감(Partial-Concept Inspiration)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기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무오는 신앙과 구원교리에만 기록해 놓은 성경(聖經 : The Holy Bible : scripture)을 호칭할 때 성서(聖書 : sacred book)라는 말을 사용한다.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 성경과 성서는 엄연히 구별되는 동시 신학 용어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학사상이 표현된다 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독자 온전영감을 신봉하는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성인의 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經 : 法也, 治也, 直也)자를 붙여 사용한다. 반면에 성서라는 말은 흔히 불신자, 천주교, 현대주의 신신학자들에게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1611년 최종권위역본(AV)인 킹제임스성경이 출간된 이래 로마 카톨릭과 현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번개시킬 목적으로 많은 개역본 성서들을 출간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현재 미국의 근본주의 보수교단들은 하나님의 전통 보수 성경인 오직 하나의 성경인 KJB를 사용하는 한편 모든 자유주의 교회들은 번개된 개역본성서를 사용하고 있다. W.C.C.도 여기에 속한다.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한국

에는 10종류에 달하는 성서들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또한 주석 성경은 20종류가 넘는다. 하나님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성경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여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이세상의 혼란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단 하나의 성경만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10종류에 달하는 번개된 다양한 성서(聖書)들은 서점마다 태산같이 쌓여 있다. 그러나 일일일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성경(聖經)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근본주의 보수교단의 성경이 없다고 말을 했다. 그렇다만 자유주의 교단에는 성경이 있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번개된 성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3백이 넘는 무인간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성경과 성서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7만2천7백12곳이나 개정한 성서를 사용하면서 성경이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다는 말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위기는 한국교회와 W.C.C.를 대항할 근본주의 보수 성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는 것이다.

2. 이단들의 천국이 된 한국교회

1977년도에 대한성서공회가 천주교와 합작하여 공동 번역한 에큐메니칼 성서를 출간했을 때 건국대학교 류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한글 공동번역은 새로운 이단의 교과서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한국은 세계 교회사상 가장 짧은 단기간에 인구당, 지역면적당 최대의 이단을 생산할 차목의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류영훈, 엘리아 복음선교회의 정체 분석, 국제종교문제 연구소, p.48)』

세계적인 원문비평의 권위를 갖고 계신 미국의 피터 S. 퍼크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현대어』로 된 가장 최근에 나온「신뢰할만한 역본들」(RV, ASV, NASV, NIV, RSV, NRSV, Living Bible 등) 7개는 마약거래, 사생아 출산, 합법화된 포르노 및 사창가, 성 도착증의 용납, 공립학교 제도의 파괴, 정부에 의한 교회 및 사립학교의 강제 인수,

500%의 범죄 증가율,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성경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를 제외하고는 미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성경이 버려지거나 번개되거나 하는 경우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때이든 간에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 재난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갈 6:7).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라고 받아들여진 권위는 반드시 투옥, 기근, 고문, 마귀 숭배, 사망 등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교회사야말로 바로 이 진리를 입증해주고 있으니 비록 한 교회가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 책과 동행한다고, 아무리 떠벌려도 진실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의심과 불신의 파도는 닥치게 마련이요, 곧이어 분쟁, 권리 착취, 세금, 사유 재산 상실, 자유의 상실, 체포, 사망, 고문, 전쟁, 기아, 마귀 숭배가 물밀듯 몰려오게 마련이다.(신약 교회사, 말씀보존학회역, pp.20~21)』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바른성경이 없는 위기로,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른교리(개역성서는 교훈)를 측정할 바른신학이 없는 가운데 이단 천국을 만드는데 있다. 또한 이단 연구 전문가들에게 이단들이 수억의 돈만 갖다 주면 그 다음날 이단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타락해 있다.

한기총은 보수신앙을 강조하면서도 최종권위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 장로교회 류광수 같은 이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잘못된 판정을 내린 것이다. 번개된 성서를 가지고 정통을 이단이라고 한다든지 이단을 정통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에서 하는 소행이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지 오래된 자를 한기총은 무슨 권한으로 이단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만이 하는 만행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은 결코 아닌 것이다.

개역한글판 성서(개정판)는 이단 교과서로서 이미 판정이 난 성경이 아닌 성서인데 이 성서를 기준으로 이단 판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단 천국'이란 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큰 위기인 것이다.

3. 바른 지도자가 없는 한국교회

작년 한국은단 12월호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위기관리 능력, 임기 중 업적, 자질, 성격 등 5개 항에 대하여 전국 정치학회 소속 정치학자 2백 4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 총체적 1위는 71.9점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2위는 67.5점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38.9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C학점, 이승만 대통령은 D학점, 김영삼 대통령은 F학점으로 오늘의 IMF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총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다.

결국 우리 국민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A급에 해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모셔보지 못한 불행을 안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택하여 대통령이 되게 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가 함께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였고, 영부인은 가톨릭 장로이다. 민정수석이었던 김성재 비서관은 한신대 교수로 가장 목사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개신교 장로였다.

월간중앙 3월호에 의하면 지도적 집단의 기독교인 비율은 50%나 되고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40%나 차지하고 있다(국민일보 2012년 6월 24일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 비리에 연계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계에 일고 있던 4대 의혹사건, 고금동 로비 의혹, 그림 로비 등 모두 기독교인들이 주범이 되어 있었다.

또한 김영삼 장로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얼마나 곤욕을 겪었는지 모른다.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김영삼 장로에게 던진 「계란 페인트 테러」는 어쩌면 한국교회를 향해 던진 돌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에는 이것이 다 「내 탓이요」라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거세게 날아오는 그 돌을 막을 지도자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래 성경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마 23:9~12). 땅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종이다(마 23:9~12).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바른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종의 고귀한 직책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성경에 없는 총회장, 총재, 사무총장 등 명예감투

를 좋아하는 권위주의 정치꾼 목사들이 한국교회 자칭 지도자라고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날아오는 「계란 페인트 테러」의 투석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비리에 연류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권위주의 지도자의 억압 밑에서 신앙 양육을 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버리고 세상 권세자들과 합세하여 불의한 일에 동참하다가 결국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했다는 것이다.

성경을 버린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아니라, 사탄의 불의한 병기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성경을 포기한 자칭 지도자들 때문이다.

진정한 지도자란 성경이 말한대로「지도자」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겸손한 종의 신분으로 말씀의 강단을 굳게 지키고 있는 숨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성경을 포기한 자칭 지도자들 때문에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 한국교회는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교회로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성경을 헌신짝 같이 버린 자는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굳게 지킨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회와 국가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한다는 것이 엄숙한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곧 지도자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다. 성경을 버리고 자살한 사울왕같은 지도자는 많으나(삼상 25:26)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그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한 다윗 왕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다윗 왕같은 지도자를 한번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는 특집관례로 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는 인터넷방송 www.jtntv.kr 에서 가정예배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편집장 올림



손기태 목사
한빛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콰민 목사

- ◆ 애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 등불교회 담임
-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 예복부흥사관학교 대표
-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혜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기적의 치유집회



장사 박수영 목사

-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장사단장
- ◆ 기독교TV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 동부노회 노회장
- ◆ 영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뛰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야가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으로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 ※ 이 외에도 많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집회 특징

- ♥ 신유, 예언, 상담이 정확함(사 11:2, 요엘 2:28)
- ♥ 병 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행 19:11-12)
- ♥ 원인 불명의 불치병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사 41:3)
- ♥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온사 절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 회개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막 16:17-18)
- ♥ 사명이 회복(목회, 전도, 봉사, 섬김)되는 성회(렘 4:11-12)
- ♥ 첫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된다(산 6:12)
- ♥ 영권, 인권, 물권 열리는 성회(대상 4:10)
- ※ 일일간증집회,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2박 3일 성회, 교회헌법대로

담임목사 : 010-8537-8291 / 교회 : (053) 752-8238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을 쌓아 영광을 얻고
2. 온 세계를 전파케 하리라
3. 사랑과 영혼에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3 목회 지침

1. 내 정막터를 넓히라 (사54:2)
2. 성령의정막터를 넓히라 ---은사
3. 영혼구원의 정막터를 넓히라 ---세계선교
4. 성도의 정막터를 넓히라 ---성경
5. 축복의정막터를 넓히라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명, 최원희, 박애숙
협동전도사 : 김애미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중복좌파 촛불폭동기도 사전 제압해야 국가안전

소위 친노라고 부르는 주사와 족속들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미션. 효순 여중생 미군장갑차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반미 촛불시위로 연결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린 추억과 함께 2008년 초 광우병 위험조작 106일 촛불폭동으로 갖 취임한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권을 뿌리 채 흔들어 댄 교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2008년 광우병촛불폭동 당시 북한에 친지감동 김정일로 부터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에 김대중으로부터는 "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는 찬사와 격려까지 받아가며 광화문 일대를 '해방구'로 만들어 2MB타도 구호에 가위 늘린 이명박 대통령이 "깜깜한 밤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르며 투항"케 만들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중복반역세력이 18대 대선에 입하면서 김정운의 대남명령 1호에 따라서 '원탁회의'의 배후 조종에 따라서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라는 반미반보수진보(중복)대연합 통일전선체구축에 혈안이 된 한 편, 장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표시간연장'이라는 해괴한 이슈를 들고 나와 장외투쟁을 통한 야권 표 결집을 시도 했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 문제인 안철수 짝 짓기 '문철수 전략'의 실패로 문제인이 낙선 하자 극렬지지자와 사이비 투사들이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의혹을 부풀리면서 다음 야고라 서명운동과 미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이라는 해프닝까지 벌여가며 군중들을 선동 촛불시위로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문제인의 동기와 당의 지지가 없어 실패하였다.

그렇다고 중복반역세력이 촛불폭동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완전히 버렸다고 할 수는 없다.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범대위'라는 것을 급조하여 민노총 전교조 범민련 한 대련 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중복 성향 단체와 전문 시위꾼을 결집, 일부 연예인과 좌파 지식인들이 전면에 나서 군중을 선동 삼시간에 도합점거 폭동으로 해방구를 만들고는 하였다.

매항리사격장폐지(2000.6), 부안방폐장 건설반대(2003.11), 평택대추리미군기지 이전반대(2005.5), 맥아더동상파괴(2005.7), 여의도농민쌀수입반대(2005.12), 한미 FTA 반대 광우병폭동(2008.5) 등 군중집회는 반미, 미군철수, 반핵, 평화통일, 국보법 철폐, 환경과 생명, 인권과 민생 등 구호를 대중적 구미에 맞도록 각색 정권타도 체제전복으로 연결 짓는다.



결국 남한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위와 폭동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남북한 전체 애국적 민주역량과 통일전선강화"라는 노동당 규약(2012.4.14) 이행에 귀착하게 된다.

투쟁양상은 북과 노동당이 하달한 지령에 입각하여 '범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대학가에 침투한 주사와와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 뿌리내린 중복 세력이 광범위하게 연대 연합하여 대규모 군중을 동원, 증오심과 적개심을 무기로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교묘하게 배합하여 반정부 반체제투쟁을 전개 한다.

선거전 투표시간연장 투쟁, 선거직후 전자개표기부정재검표 투쟁이 뚜렷한 명분이 없고 백악관 청원운동 등 전술 면에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반정부 반체제 중복 반역투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법은 결코 없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이슈와 방식으로 박근혜정권 초전박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하게 돼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투쟁은 박근혜 정부인사 꼬투리잡기 투쟁을 시발로 3월 반값등록금 전면실행 투쟁과 노동계 임금 투쟁, 야권 공약이행촉구 투쟁과 연계, 4대강부

실문제와 대미정책 등과 연계, 장외 투쟁으로 발전을 획책 할 것이다. 특히 시급한 전력수급 문제와 원전건설반대를 중심 고리로 삼을 공산이 어느 때 보다 크다. 한수원이 블랙아웃 위험에까지 이른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자난해에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에 총 6기 900만KW의 원전을 짓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명박정부가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

루어 났다는 사실과 조직적인 원전건설반대를 위해 유명무명의 중복단체를 망라한 범대위적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결성, 투쟁에 돌입했음이 주목된다. 투표시간연장이나 전자개표기재검표주장 같은 주제는 군중동원과 대중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나 임금협상 민생공약 이행은 학생 및 근로자, 서민 대중과 이해가 직결된 문제이며, 원전건설은 부안방폐장건설반대폭동 사례에서 보듯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을 이용, 쉽게 선동이 가능한 이슈로서 잠재적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본다.

각종 종교 및 환경단체, 전문 시위꾼 다함께, 민변, 민연련,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진보연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유명 무명의 76개 단체가 연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명의로 2012년 12월 17일자 "박근혜 후보, 수명 다한 불량 원전을 왜 또 조사하나"라는 성명에서 이미 시비의 단초를 마련해 놓

고 있어 원전반대투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삼척, 울진, 영덕, 고리, 월성, 영광 등 원전벨트 및 건설예정지역 내 거주 주민은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유언비어나 악의적 선동에 뇌화부동하지 않도록 대국민 사전설득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중복반역세력의 불순한 목적과 악의적 동기에 의한 소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유지하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을,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붐다, 에코생협, 여성민주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프,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청교주교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설위원 백승욱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013년 겨울 전국청소년성령캠프 성료

“2013년 여름캠프에 대한 기대감 남겨”

전국에서 눈, 비 등 곳은 날씨를 뚫고 참석하신 이천명의 청소년들이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2013년 겨울 전국청소년성령캠프'가 은혜 중에 마쳤다.

이번 "2013년 겨울 전국청소년성령캠프"는 경기도 평택 오산

성운동산에서 1차는 1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2차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총 2차에 걸쳐서 이천 명의 가까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갔다.

이번 캠프에서는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김인환 목사(광교지구촌교회),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 안민 교수(고신대학교), 김현철 목사(행복나눔교회), 김동환 목사(다니엘학습법 저자), 천관웅 목사(뉴사온교회), 다니엘김 선교사(JGM대표), 크리스티김 선교사(YM하와이열방대학 내적치유 교수), 임우현 목사(하늘향기교회), 문대식 목사(늘기쁨교회), 설동욱 목사(서울예장교회) 등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고 최인혁 집사, 소리엘 등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열정의 찬양콘서트도 진행됐다.

캠프의 열기는 대단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강사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위 참석한 청소년들의 영혼을 뒤 흔들기에 충분했고 찬양콘서트마다 하나님의 높고심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높이 고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식사는 맛이 있었고 잠 자리는 따뜻했으며 집회 시간마다 출서서 앞자리에 앉겠다는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의지는 놀라웠다.

무엇보다도 저녁말씀 이후 설동욱 목사가 직접 인도한 성령캠프기도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 하고, 병교침을 받고 방언의 은



설동욱 목사

사를 받았으며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 주셔서 감사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다 감동받아 울었다는 간증도 있다. 울고 웃으며 은혜 받은 성령 캠프는 2박3일이라는 일정이 짧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고 '2013

년 여름 전국청소년성령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고 끝마쳤다.

이번 캠프를 총괄 진행한 설동욱 목사(서울 예장교회)는 "하나님은 이번 2013년 겨울 전국청소년성령캠프에도 뜨겁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

“사랑한다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성령캠프에는 참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성령캠프 오픈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참 생소하고 어색해하며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캠프를 진행하다보면 청소년들의 단했던 인솔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졌던 손이 하늘 높이 들려지며 캠프 엔딩에서는 참석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야멘으로 화답하고 밝은 미소로 하 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캠프의 매력인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 크신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2013년 여름 전국청소년성령캠프'는 더욱 큰 축복의 캠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목회자사모신문 주치의 전국청소년성령캠프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일아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복된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임찬미 목사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임찬미 목사

장 로 : 최원영

전 도 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선 교 사 : 함다니엘 황예진 조에스터

반 주 자 : 박씨은 박시내 정은주

예 · 배 · 시 · 간

주일날 예배 :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 주일 오후 7:30

청년부 예배 : 주일 오후 2:00

심야기도회 : 매일 오후 9:00

학생부 예배 : 주일 오전 9:00

축복성회 : 매 주 금, 토 저녁 9:00~

주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매주 주일 저녁 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복된교회

담임 정대성 목사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섬기는 분들

당 회 장 정대성 선교사

담 임 목 사 임찬미 선교사

교 육 목 사 이성철

장 악 목 사 김광만

성 로 임연성 정덕남

안 수 집 사 김진영 윤상우 진대박

권 사 황원순 김현애

여선교회장 오진희

찬 양 인 도 임찬미 선교사

지 휘 자 황창하 사모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지저스타임즈 2월의 추천작품



한국경목총회, 서울혜화경찰서장 김양수 총경에게 감사패 증정

사단법인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자들과 동행 서울 종로구 인의동 허 식 목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에 홍향표 사무총장을 비롯 관계



한경총 혜화경찰서 방문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문관 이기영 경정 등이 방문단 일행을 영접, 환영했다.

이날 한국경총회 임원, 고문, 대신총회 경목부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달 16-18일까지 한기총 wcc 찬동에 따른 한기보 목회자와 보수주의 목회자들의 한기총 반발 대회를 서로 다툼 없이 원만하게 마친데 대한 인사로 혜화서 김양수 서장에게 감사인사와 괄목신 정보관의 35년간 기독교담당관으로 헌신을 다한 수고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서장 김양수 총경의 환영 인사와 한경총 총회장 허 식 목사의 답사와 한기보험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감사인사로 덕담을 나누었다. 아울러 한경총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는 행사취지를 설명하고 한경총 총회장 허 식 목사가 김양수 서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35년간의 기독교 담당정보관 괄목신 경위에게 그간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경찰서장 김양수 총경은 모범경목(지왕철, 이범성, 박동호, 홍철표, 계원만 목사) 등 5명에게 시상했다.

2부로 우슬초 목사의 사회로 특별 찬양과 덕담을 나누는 행복환축제의 장이 되었다. 한국기독교가 이번 계기로 삼아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어 협력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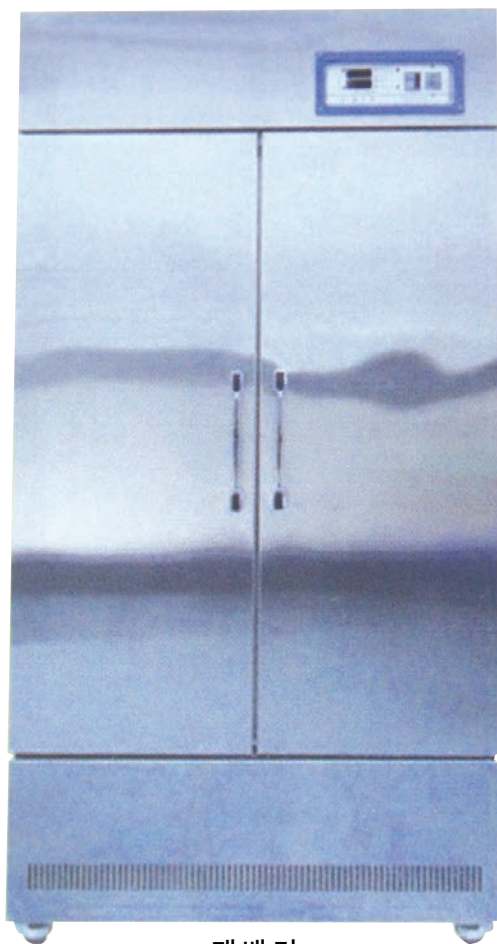
피종진 목사 2월 국내·외 성회 일정

- 1(금) 오전 (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주최 원로목사 초청 위로연회, 장소: 서울 삼청각
1(금) 오후 국제총회신학교(학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박명순 목사) 010-968-9191
2(토) 오전 국민대통합기독교(준비위원장 이호운 감독), 장소: 일산 킨텍스
4(월) 오후 다드림국제기독교문화예술제(총재 전정순 목사, 준비위원장 고발주) 장소: 구미88올림픽공원 054-480-2050
5(화) 오전 남양주 수동기도원(원장 이태희 목사) 031-594-6161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 부흥사회(대회장 정만철 목사)
5(화)~7(목) 광주 여광교회(김동현 목사) 010-3770-1453
11(월)~13(수) 영광 사랑의교회수양관(원장 고정목 목사) 070-4115-8291
15(금) 오전 (사)한국미래포럼(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상임회장 김준규 정로) 17(주)~18(월)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2-531-7216
제175차 해외성회(175th Overseas Assembly)
19(화)~20(수) 인도(India) 원주민 목회자 & 한인목회자 세미나
서남아시아 네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목회자 연합성회
장소: 뉴델리 구루가온(본부장 송문규 목사) 91-99719-0091
21(목)~23(토) 인도(India) 서남아시아연합성회(준비위원장 정용규 목사) 장소: 뉴델리 구루가온 070-8628-7411
25(월)~27(수) 충주 금식수양관(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26(화) 오후 총회연합신학교(학장 박종두 목사) 032-344-3313
28(목) 저녁 대전 성광교회(이상규 목사) 042-271-6406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0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63411-9191
FAX : 02-6401-7770

온천하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희소식



침수식 콩나물 · 숙주나물 재배기 출시

● 특징 및 장점

- ※ 생산자
★ 익일 생산량 판매시 한 가정의 주수입원이 된다(일 6kg 이상)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생산이 용이하다(H 1980mm W 4410mm D 800mm)
★ 물의 소비량과 전기 소모량이 적어 생산비가 저렴하다.
★ 어느기관에서 검증해도 무독성이다(독성 무검출)
※ 소비자
★ 생식용으로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죽식으로 사용가능)
★ 생주스로 갈아마실 시, 즉시 체온상승을 느낄 수 있으며 3일 후 몸의 변화를 느낀다.
★ 장기 섭취하면 식원병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까지 주신 선물을 통해 치료하신다. (식원병: 변비, 관절병, 고혈압, 당뇨, 이토피, 비만, 독소등등)

- ※ 사업자
★ 가정, 식당, 교회, 기도원, 요양원, 아파트 노인회, 미지립교회, 선교지 공공기관 공동체, 사회적기업, 해외수출 등등 많은 판매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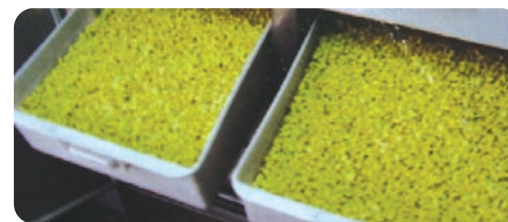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모든 음식에서 비롯된 (식원병환자) 질병과 허약함을 완전 해방시키는 특수(콩나물, 숙주나물) 재배기를 저로 발명케 하셨습니다.

● 검증



대전 소재 광음교회 이용덕 목사님(시무)
2년여에 걸쳐 '버리지 않는 전도지' 동영상을 You Tube에 올려 놓으심
교회주소: 대전시 서구 도마2동 316-7 / H/p: 010-4491-7757 / 010-9372-1163 / T/d: 045-525-1163

-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 특허 제10-0617624 □ 형 배수관 콩나물 재배상자
★ 실용신안 제0351095호 침수식 콩나물 재배상자



판매처: 팜메이커(주) 대표 최영식

☎ 010- 8852-766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62-7

딜러 모집
010-8852-5766